

2012년 한국산업위생학회 추계학술대회 참관기

대한산업보건협회 광주산업보건센터 / 박 정 재



대구에서 열리는 이번 한국산업위생학회 추계학술대회(이하 '학회')는 올해로 23주년을 맞이하였다. '건설업의 안전과 보건'을 주제로 논문들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고향이 '구미'인 나에게 학회가 열리는 장소가 대구 팔공산 인근이라 고향에 가는 기분으로 광주에서 출발하였다. 광주에서 학회장까지의 거리는 약 4시간 정도, 매달 두서번은 대구를 오가지만 꼭두새벽에 일어나 출발해서인지 여정은 쉽지 않았다. 게다가 그날따라 안개가 심하여 운전하는 동안 긴장의 연속이었다. 드디어 긴 여정을 마치고 학회가 열리는 대구 평산아카데미에 도착했다.

속속 타 센타 직원들도 하나 둘씩 도착했고 서로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협회 직원들은 이미 사전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라 큰 불편함과 복잡함 없이 이름표와 책자를 받아 볼 수 있었다.

위생학회 학술이사이신 최상준 교수님의 인사와 묵념 및 국기에 대한 경례를 시작으로 추계학술대회의 문을 열었다. 학회 일정의 간단한 소개와 함께 김태형 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다음으로 대한민국의 산업위생에 큰 업적을 남기신 백남원 교수님께서 축하 메시지와 학회의 간단한 이력을 말씀해주셨다.

학회 참가가 4번째인 나는 다른 때와 달리 다른 목적이 있었다. 다름 아닌 금년 동계학술대회 때 발표한 ‘강화플라스틱 제조 사업장의 적층 공정에서 발생하는 스티렌의 특성’ 포스터가 우수 포스터로 선정되어 상을 받게 되었다.

학회의 주제가 ‘건설업의 안전과 보건’이었던 만큼 국내·외 건설업 안전 보건 동향과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예정되어 있었다.

첫 번째 발표는 충북도립대학교의 원정일 교수님의 ‘작업환경측정 분야 종사자의 근로환경조사’ 결과 발표였다. 현재 작업환경측정을 주 업무로 맡고 있는 나로서는 가장 관심이 있었던 발표였다. 발표 내용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근로시간 및 급여, 근무환경 중심으로 발표가 되었고 현재 나의 근무 환경과 타 기관의 평균적인 근무환경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두 번째 발표는 본격적으로 건설업의 안전과 보건을 주제로 하였다. 한림대학교의 권영준 선생님의 ‘건설업 산업재해 현황 및 특성’이었다. 건설업과 일반 제조업의 차이점으로 시작된 발표 내용은 건설업의 중층적인 하도급 구조, 건설업 노동자의 규모 및 직종별 분포, 우리나라 산업재해 발생 추이를 요약 설명하였다.

지난 10년간 재해천인율은 제조업이 건설업보다 높았지만 지난 10년간 재해 사망만인율은 제조업보다 건설업이 조금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건설업이 위험한 업종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이어 건설업의 사망재해 특성

과 원인, 미국의 건설업 사망재해 원인 및 재해율에 대한 업종 비교가 발표되었다. 마지막으로 건설업 재해 통계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논하였다.

세 번째 발표는 대구가톨릭대학교의 최상준 교수님의 ‘국의 건설업 안전보건 동향’을 주제로 한 내용이었다. 최상준 교수님은 나의 은사이시기도 하여 더욱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발표는 국제적 문제의식과 국외 건설업의 규모와 건설업 재해 규모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다음 내용은 건설업 안전보건 관리 주체에 대해 발표가 이어졌다. 그리고 산업위생전문의의 역할에 대하여 노출평가와 주요 특성 및 위험도 평가의 접근에 대해 발표하였는데, 결론적으로 정부의 제도 마련, 감독 역할, 안전보건을 고려한 설계의 역할 중요성 그리고 건설 근로자, 노동조합과 정부, 전문가의 연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발표는 마무리되었다.

참가자들은 생각보다 긴 시간 동안 앉아서 듣다보니, 자유롭게 다과와 차를 즐기며 앉아서 계속 들었다.

네 번째는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윤간우 선생님의 '건설업 노동자 노동조합 조직현황과 안전보건 활동'에 대하여 발표가 시작되었다.

논의 내용은 안전보건에서 노동조합의 역할/활동, 건설업 노동조합 조직현황, 건설업 노동자의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어 마지막으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심규범 선생님의 ‘건설업 안전보건관리 현황과 제도 개선 방’을 주제로 발표가 있었다.

시작부터 쉬운 주제는 아니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문구와 이론적인 틀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1년 모든 산재 지표가 전년 대비 감소추이를 보이지만 건설업 재해자 및 사망자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뜻은 건설업 재해 감소 없이는 전체적 재해 감소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소규모 현장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소규모 현장 및 사업장은 대규모 사업장에 비해 작업환경이 매우 열악한 편이다. 소규모 사업장의 문제는 건설업 뿐 아니라 모든 업종에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어 산재 발생 현황 및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하셨다.

모든 발표가 끝나고 지정 토의 및 전체 토의가 진행 되었고 학회에 참가한 모든 분들이 질문 및 답변을 주고받으며 자유로운 분위기로 이어갔다.

1부가 끝난 뒤 참가자들은 커피 한 잔과 잠깐의 휴식을 취한 뒤 각자 함께 온 지인들과 가벼운 발걸음으로 제2부 포스터 발표 세션장으로 향하였다.

가면서 금년 동계학술대회에는 내가 발표한 포스터에 스티커는 얼마나 붙었는지 누가 내 포스터에 큰 관심을 가지며 지적은 안하는지 마음 졸였던 때가 생각났다.

포스터 세션장을 둘러보며 이해가 힘들고 어려운 내용도 있었지만 유익하며 재미있는 내용들도 인상 깊었다. 포스터를 다 둘러본 후 다음 순서인 이광목 세션을 보기 위해 학회 프로그램 책자를 봤는데, 어떤 내용을 들을 지에 대해 고민에 빠졌다.



이광дук 세션은 학회에만 존재하는 세션이며 우리나라 산업보건의 큰 역할을 하신 이광дук 교수님의 합자를 인용하여 만들어진 세션이다. 잠깐 고민을 한 후 ‘유해화학물질(관리대상/특별관리 물질)에 대한 안전 보건 관리방향-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관련’을 주제로 한 강좌를 듣기로 하였다.

이 내용은 발암성 물질 즉, 현재 특별관리물질로 표기되는 물질들과 관리대상 유해물질들의 관리 등 평소 작업환경측정이라는 업무를 하며 애매한 부분이 많았던 내용들이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관리대상 물질, 특별관리 물질, 허가 물질, 금지 물질 이렇게 여러 분류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러한 여러 화학물질 관리를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닌 다른 법에서는 어떻게 관리되며 일본, 미국, 영국 등 선진 외국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화학물질들을 어떻게 관리 하는지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또한 우리나라가 아직은 더욱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첫날의 일정은 끝이 났고 참가자 모두가 저녁 만찬을 즐겼다. 만찬의 특별한 코너, 경품추첨 또한 빠지지 않았다. 이렇게 학회 회원간 친목을 도모하며 하루가 마무리 되었다.

이틀째 날 아침이 밝아왔고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제4부 산업위생 연구발표가 시작되었다. 세션 A, B, C, D로 나누어 좌장의 진행 하에 발표자들은 오랜 시간 준비한 연구를 발표하였고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다. 연구 발표가 모두 끝나고 폐회식이 진행 되었으며 한국산업위생학회 2012년 추계학술대회는 이렇게 끝이 났다.

이번 학술대회는 ‘건설업의 안전과 보건’을 주제로 진행되었는데, 우리나라 건설업의 안전과 보건은 아직까지는 많은 부분이 미흡하며 개선해야 될 점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개인적으로 작업환경측정 분야 종사자의 근로환경조사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방향이 가장 흥미로웠다. 그리고 2013년 학회에는 더욱 알찬 정보를 가져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